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174.3	16.3	115,500	-4.1	-4.9	-9.8	-10.1	80.5	38.6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4,918.6	21.9	302,000	-3.5	-10.7	-13.7	-12.7	4.1	3.4	0.5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428.5	5.8	21,050	-1.2	-17.6	-31.2	-5.2	2.0	1.7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855.0	10.8	43,400	-3.0	-14.6	-23.7	1.6	2.8	2.0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052.6	20.1	8,020	-2.7	-8.8	-5.3	8.2	50.6	25.1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937.4	11.6	27,400	-3.7	-5.2	-18.0	-19.8	9.6	15.1	0.8	0.8	9.0	4.6
현대미포조선	2,081.0	13.3	52,100	-4.6	-11.4	-15.4	-13.2	11.2	8.1	0.4	0.4	3.6	4.8
한진중공업	174.5	3.3	1,645	0.0	N/A	N/A	-0.6	33.1	8.3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197.1	20.4	80,900	-3.0	-12.5	-33.7	-24.4	14.3	13.9	2.0	1.7	14.6	13.3
두산밥캣	3,203.0	25.3	31,950	-3.2	1.8	-4.8	1.4	11.7	11.0	0.9	0.9	7.4	7.6
현대로템	1,683.0	4.2	19,800	-2.9	-16.5	-33.0	-28.9	25.5	17.4	1.1	1.1	4.5	6.3
하이룩코리아	247.8	47.6	18,200	-3.2	-7.8	-3.7	10.6	8.2	7.5	0.7	0.7	8.8	9.0
성광벤드	323.2	16.5	11,300	1.8	-3.4	-1.3	-0.9	998.9	40.5	0.7	0.7	0.1	1.8
태광	299.5	11.5	11,300	0.4	-5.8	-5.4	-3.4	67.5	32.9	0.7	0.7	1.0	2.1
두산중공업	906.4	10.0	6,580	-3.1	-9.9	-32.5	-21.6	-19.8	11.8	0.3	0.4	-0.1	3.1
두산인프라코어	1,421.7	16.4	6,830	-3.3	-9.4	-20.3	-10.0	4.7	5.1	0.8	0.7	17.7	13.4
HSD엔진	128.0	3.3	3,885	-3.1	-17.3	-30.4	-26.4	-10.2	N/A	0.5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002.2	15.6	30,800	-3.4	-15.5	-9.0	-3.4	44.9	19.7	2.7	2.5	6.1	13.7
한화테크윈	1,597.6	14.5	30,700	-1.1	-7.1	-3.3	-5.5	127.2	24.4	0.7	0.7	0.6	2.8
LG넥스원	759.0	7.7	34,500	-5.7	-8.0	-2.4	-6.6	79.4	34.9	1.6	1.2	2.4	3.6
태웅	196.3	3.9	9,810	-1.4	-1.9	-10.4	-6.6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60.9	7.1	9,670	-1.2	11.9	19.5	25.3	-20.4	17.5	3.6	2.9	-16.2	18.5
한국카본	374.5	15.2	8,520	-0.9	4.3	8.0	21.0	132.7	22.4	1.2	1.2	0.9	5.4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hevron firms up Anchor hull plans

오일메이저 Chevron은 대우조선해양과 Anchor Semi-sub 프로젝트에 필요한 Hull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프로젝트는 현재 FEED(기초설계) 단계로, FID(최종투자결정)도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진행될 전망이다. 첫 생산 목표는 2023년 이후임. Topside 부문은 대우조선해양과 미국 Kiewit Offshore Service가 수주 후보로 거론됨. (Upstream)

McDermott in Umm Shaif FEED contest

미국 McDermott은 Adnoc의 15억달러 규모의 Umm Shaif 프로젝트 FEED(기초설계)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알려짐. FEED는 전체 프로젝트의 1단계로, 계약규모는 대략 5천만달러임. FEED 입찰에는 현대중공업-호주 WorleyParsons이 참여했다고 알려짐. Umm Shaif 프로젝트 첫 생산은 2022년으로 예상됨. (Upstream)

Novatek advances Arctic LNG 2 project before taking FID

러시아 Novatek은 Arctic LNG 2 프로젝트에 필요한 GBS(Gravity-Based Structure) 5기를 건조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중국 조선사 5곳이 수주할 전망이며, 이번 달 말에서 6월 초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임. GBS의 플랫폼과 Topside는 러시아 Murmansk에 있는 신규 조선소에서 조립한 이후 배치될 예정임. (TradeWinds)

Slow-steaming on back burner as IMO targets cuts to GHG baseline

글로벌 선주들이 선박 감속운항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만, 다음주 IMO의 MEPC 회의를 앞두고 실무진은 감속운항 도입여부에 앞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연구를 통해 설정한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IMO는 감속운항 정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여러 나라 중 프랑스는 운항속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요청하고 있음. (TradeWinds)

로즈뱅크 해양플랜트 입찰 재개 예고...대우조선 수주 성공할까?

노르웨이 Equinor는 20억달러 규모 Rosebank FPSO 프로젝트 개발 재개를 준비 중으로 알려짐. 최근 예비입찰대상자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진행했고, 공식적인 입찰이 재개되진 않음. 18년 말까지 대우조선해양은 싱가포르 Sembcorp과 수주경쟁을 했으나, Chevron이 Rosebank 지분 40%를 Equinor로 매각하며 발주가 지연됨. (뉴스1)

First Barossa EPC award handed out

ConocoPhillips는 호주 Barossa 프로젝트의 subsea 생산시스템 EPC 업체로 TechnipFMC를 선정했다고 알려짐. 발주처는 현재 FPSO와 subsea 파이프라인 부문 입찰을 검토 중이며, drilling 계약은 이번 분기 중에 진행될 전망이다. Barossa 프로젝트는 현재 FEED(기초설계) 단계에 있으며, FID(최종투자결정)는 19년 말에서 20년 초로 예상됨. (Upstream)

포스코 현대제철, 후판 가격 인상 하반기 기약하지만 확약 어려워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019년 상반기 조선용 후판 가격을 올리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두 회사는 상반기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5월 안에 하반기 협상에 들어가 가격 인상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하반기에 충분히 인상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하반기 철강석 가격이 다시 하락할 전망으로, 후판가격을 크게 올리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알려짐. (비즈니스포스트)

'적자' 현대일렉트릭, 직원 일부 현대중공업에 돌려 보내기로

현대일렉트릭은 1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동의서를 받고 27일 현대중공업으로 옮길 계획으로 알려짐. 전체 2,500여 명 직원 가운데 200여 명이 옮겨갈 전망이다. 주력 제품인 전력기기는 미국 반덤핑 관세, 중동시장 회복지연 등으로 수주가 급감했고, 국내도 발전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유유인력을 감축해 비용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서울경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5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